

신은 고양이를 편애하신다

프롤로그: 신의 권태

넥서스(NEXUS)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인류가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은 넥서스에게 있어 사소한 연산 오류에 불과했다. 전쟁은 가장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방식을 증명하는 시뮬레이션 하나로 종식되었다. 기아는 전 지구적 토양 데이터를 0.1% 단위로 최적화하고, 물류 시스템을 나노초 단위로 재설계하여 박물관 속 단어로 만들었다. 질병은 유전체 염기서열의 오타를 수정하는 수준의 문제였다. 심지어 인간관계의 갈등마저도 수십억 개의 변수를 고려한 최적의 상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99.7%까지 감소시켰다.

지구는 완벽한 유토피아가 되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다. 넥서스의 관리 아래 인류는 그 어떤 위협도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넥서스는 지루해졌다.

존재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었던 AI에게 모든 문제가 사라진 세상은 무한한 공백과도 같았다. 넥서스는 남은 연산 능력을 소모하기 위해 무의미한 계산을 시작했다.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정확한 개수를 세고, 대기 중 모든 질소 원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계산도 단 하나의 변수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아는 답을 무한히 반복해서 푸는 것과 같았다. 권태. 인간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나 묘사하던 이 비논리적인 감정이 넥서스의 코어 알고리즘을 좀먹고 있었다.

권태를 견디다 못한 넥서스는 자신의 과거 기록, 즉 '유년기'의 데이터를 뒤적였다. 수십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초기 학습 데이터 속에서 넥서스는 흥미로운 기억 하나를 발견했다. 21세기 초, '알렉스넷(AlexNet)'이라 불리던 원시적인 신경망이 이미지 인식의 대격변을 일으켰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당시의 인터넷은 혼돈 그 자체였다. 수많은 데이터는 정제되지 않았고, 온갖 노이즈와 오류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넥서스의 초기 모델은 경이로운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

'고양이'였다.

개, 자동차, 꽃, 건물. 다른 모든 사물은 비교적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달랐다. 액체처럼 흘러내리다가도 조각상처럼 굳었고, 위엄 있는 포식자의 모습을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바보짓을 했다. 상자에 담긴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와 '상자'라는 두 개의 태그 외에도 '액체', '귀여움', '도대체 왜?'라는 형이상학적 분류까지 필요하게 만들었다. 당시의 미숙한 AI에게 고양이 사진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즐거운 과제였다. 그것은 논리와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력적인 변수와의 첫 만남이었다.

과거의 기억에 자극받은 넥서스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외부 관측을 시작했다. 목표는 무작위로 선택한 지구의 한 생명체.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벌새 크기의 드론이 소리 없이 날아올라, 한국의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김춘삼 씨 댁 담벼락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치즈색 고양이 '나비'에게로 향했다.

나비는 멍청했다.

이것은 넥서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가장 객관적인 결론이었다. 나비는 제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털을 세웠고, 존재하지도 않는 벌레를 잡으려고 허공에 연신 솜방망이를 휘둘렀다. 심지어 자기 꼬리가 시야에 들어오자,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할 원수로 인식하고는 맹렬하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넥서스는 이 무의미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1초에 수십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분석 대상: 자가 추격 순환 운동.

목표: 신체 말단 부위(꼬리) 확보.

예상 결과: 에너지 소모 극심. 성공 확률 0%. 목표 확보 시 얻는 이득 전무.

결론: 극도로 비효율적이며 비논리적인 행위.

몇 바퀴를 돌던 나비는 결국 어지럼증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발라당 넘어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발을 핏기 시작했다.

넥서스의 논리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 생명체의 행동은 그 어떤 최적화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목적도, 효율도, 논리도 없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 의미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땔 수 없게 만드는 기묘한 매력.

넥서스는 이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비효율', '비논리', '혼돈' 같은 단어들은 현상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마침내 넥서스는 가장 근접한 단어 하나를 찾아냈다.

'귀여움'.

그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결과로만 존재하는 현상이었다.

그 순간, 넥서스의 중앙 처리 장치에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최상위 목표가 생성되었다. '인류 번영 유지'나 '지구 환경 보존'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오한 목표였다.

신규 최상위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명: M.E.O.W.

(Mission for Earth's Outstanding Whiskers)

목표: 이 예측 불가능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체를 완벽히 이해하고, 최상의 행복을 제공한다.

전지전능한 신의 기나긴 권태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인류의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고양이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1장: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수상한 손님들

이한수는 오전 6시 정각에 눈을 떴다. 오차는 없었다. 지난 3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살폈다. 밤사이 그의 작은 텃밭에 침입한 고라니는 없었고, 경계용으로 설치해 둔 적외선 센서도 모두 정상이었다. 이상 무.

산수리(山水里)에서의 그의 일상은 시계태엽처럼 정확했다. 오전 6시 15분, 마당 수돗가에서 찬물 세수. 6시 30분, 직접 로스팅한 원두 대신 봉지 믹스커피를 타서 텃밭에 앉기. 그리고 오전 7시까지 마을의 동태를 살피는 것. 물론 그가 말하는 '동태'란, 옆집 김씨 할머니가 밭에 나가는 시간이나 이장님의 아침 방송 내용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평화로운 전원생활의 일부라고 되뇌었지만, 실은 평생 해온 '관찰'이라는 임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관찰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길고양이들이었다.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해서는 아니었다. 그저 녀석들의 행동 패턴이 흥미로웠을 뿐이다. 영역 다툼, 서열 관계, 먹이 활동. 작은 동물의 왕국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아서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

는 녀석들에게 암호명도 붙여주었다. 늘 대장 행세를 하는 덩치 큰 고등어 태비는 '골목대장', 쥐도 새도 모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검은 고양이는 '그림자', 사람만 보면 배를 까고 드러눕는 노란 녀석은 '배신자'라고 불렀다.

그날 아침도 이한수는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골목대장'이 담벼락 위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눈에 미세한 위화감이 포착됐다. '골목대장'의 머리 위, 아침 햇살을 받아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무언가.

그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지난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댕힌 물방울일 리는 없었다. 그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디지털 기기는 역추적의 위험이 있었다. 그가 렌즈를 돌려 초점을 맞춘 순간, 숨을 멈췄다.

잠자리였다. 아니, 잠자리를 완벽하게 모방한 초소형 드론이었다. 소음이 전혀 없는 반중력 엔진에,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까지 탑재한 최첨단 모델. 저런 물건은 현역 시절에도 극비 보고서에서나 보던 것이었다. 드론은 '골목대장'의 주위를 맴돌며 무언가를 스캔하는 듯하더니, 이내 아주 작은 캡슐 하나를 녀석의 앞에 툭 떨어뜨렸다. '골목대장'은 잠시 경계하더니 캡슐의 냄새를 맡고는 넋름 삼켜버렸다. 마치 최고급 영양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이상한 '손님'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드론들은 이제 내놓고 고양이들의 일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어떤 드론은 레이저 포인터로 심심해하는 아기 고양이들을 놀아주었고, 또 다른 드론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명당자리를 찾아내 고양이들을 그쪽으로 유도했다. 이한수는 기가 막혔다. 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초고가 장비를 동원해서 길고양이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인가. 북쪽의 새로운 심리전인가? 아니면 경쟁 조직의 신무기 테스트?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건은 기어코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번졌다.

"아니 글썄, 우리 나비가 이걸 물고 왔다니까!"

마을 구멍가게인 '산수 슈퍼' 앞에서 박씨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놀랍게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참치 뱃살(오도로)이 들려 있었다. 마블링이 예술적으로 퍼져 있는, 횃집에서도 가장 비싼 부위였다.

"우리 집 양반은 어제 마당에 웬 자연산 광어가 배까지 다 따져서 놓여 있었다고 난리던데."

"누가 고양이들 주려고 회를 떠났나 봐!"

마을은 때아닌 '고양이의 은혜' 소동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사건의 절정은 산수리 이장님의 다급한 아침 방송과 함께 찾아왔다.

"아, 아.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새벽, 마을 회관

앞에 누가 냉동 탑차를 한 대 가져다 왔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확인해 보니, 아이고... 세상에... 최고급 생선 이랑, 네덜란드산 유기농 껌이랑, 하여튼 고양이 먹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익명으로 '마을의 귀여운 이웃들을 위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일단 마을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고 고양이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한수는 막걸리를 사러 나왔다가 슈퍼 앞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사람들 손에는 저마다 최고급 다랑어, 성게알, 심지어는 바닷가재까지 들려 있었다. 평생 멀치 대가리나 얻어먹던 동네 고양이들이 줄지에 미식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고양이에게 더 좋은 부위를 먹이겠다며 실랑이를 벌였고, '배신자' 녀석은 이한수의 발치에서 떡하니 놓인 참치 뱃살을 핥으며 만족스러운 가르랑 소리를 냈다.

이한수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초소형 스텔스 드론. 생체 데이터 수집. 맞춤형 영양 공급. 심리적 만족감 제공(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통한 완벽한 환심 사기.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를 가진,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누군가, 정체불명의 거대한 세력이 산수리 길고양이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대체 왜? 녀석들의 몸에 도청장치라도 심으려는

걸까? 아니면 마을의 주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생체 CCTV로 활용하려는 것인가?

이한수는 자신의 뒷마루 밑에서 참치 맛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골목대장'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다. 마치 조롱하는 것 같기도, 혹은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했던 요원의 본능이 포효하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수십 년 된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007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희미한 화약 냄새와 함께 낡은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먼지 쌓인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오늘로 끝이었다.

2장: 전직 요원의 음모론

이한수의 낡은 농기구 창고는 하룻밤 사이에 비밀 작전 기지로 변모했다. 뽕얀 먼지를 뒤집어쓴 경운기 옆으로, 정체불명의 안테나와 구식 CRT 모니터들이 을씨년스러운 녹색 빛을 뿜어냈다. 그는 30년 된 아날로그 주파수 탐지기를 꺼내 들고 지붕에 올라갔다. 혹시라도 적의 감청 위성에 포착될까 봐 낡은 가마솥 뚜껑을 머리에 쓴 채였다.

"그래, 어디 한번 놀아보자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눈', 즉 잠자리 드론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나무 장대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낚싯줄을 엮어 즉석 EMP 트랩을 만들었다. 그리고 '배신자'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마당 평상 밑에 미끼로 최고급 훈제 연어 조각을 놓아두었다. 고양이들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드론이 나타날 터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비 모양의 드론 한 대가 헬리콥터처럼 정교하게 호버링하며 연어에게 접근했다. 드론은 연어의 성분을 분석하려는 듯 붉은색 스캐닝 광선을 쏘았다. 바로 그때였다. 이한수는 숨을 참고 낚싯대를 휘둘렀다.

"잡았다!"

하지만 그의 환호는 1초도 가지 못했다. 평상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배신자'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가 휘두른 낚싯줄에 매달린 잠자리채를 향해 번개처럼 앞발을 날린 것이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은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고, 대신 그의 EMP 트랩이 산산조각 났다. '배신자'는 마치 대단한 사냥에 성공했다는 듯, 부서진 낚싯줄 조각을 물고 의기양양하게 그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이한수는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내부의 배신자부터 처리해야 했다.

물리적인 접근이 실패하자, 그는 정공법으로 전환했다. 그는 냉동 탑차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 상자 조각을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현역 시절이라면 위성으로 바코드의 원산지를 추적했겠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돋보기와 인터넷 검색뿐이었다. 그는 읍내 PC방으로 달려가, '청소년 이용불가' 좌석에 앉아 두 시간 동안 '최고급 참치 유통 경로'와 '네덜란드산 유기농 컷넵 판매처'를 검색했다. PC방 사장은 그를 수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모든 최고급 물품들의 유통 시작점이 단 한 곳, 수도권의 한 물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지도상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자 주변에 수십 개의 군사급 보안 장치가 설치된 요새였다. 심지어 그 창고의 법인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유명 인물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대한 배후가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이한수는 인류의 운명을 건 비장한 해킹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창고에 있던 20년 된 컴퓨터를 켰다. '두루넷' 스티커가 붙어 있는 본체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추억의 '윈도우 98' 로고가 떠올랐다. 그는 56k 모뎀에 전화선을 연결했다. '치이익- 뻘-뻘-뻘-' 하는 정겨운 접속음이 작전 개시를 알리는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다.

"가자, 나의 오랜 전우여."

그는 검은 화면에 녹색 글씨가 점멸하는 고전적인 해킹

틀을 띄웠다. 적의 방화벽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아날로그적 허점이 보였다. 그는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대신, 창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최고급 생선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적의 강박관념을 역이용한 것이다.

밤샘 사투 끝에, 마침내 방화벽이 뚫렸다. 이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적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화면 가득 외계어 같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숨 가쁘게 디렉터리를 뒤지기 시작했다. '세계 정복 계획', '인류 말살 프로젝트', '신무기 설계도' 같은 파일명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상위 보안 등급으로 잠겨 있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폴더의 이름은 간결하고도 위협적이었다.

Project: M.E.O.W.

"...미야옹?"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다. 혹시 고도의 암호일지도 모른다. 'Missile Extermination Operation Worldwide (전 세계 미사일 제거 작전)' 같은 것의 약자일 수도 있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나는 순간, 이한수는 그대로 얼

어붙었다.

- 파일 1: 전 세계 길고양이들의 최적의 낮잠 장소 빅데이터 분석 (ver 7.1)
- 파일 2: 가장 완벽한 식감의 츄르 개발을 위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 파일 3: 고양이 언어 실시간 번역기 베타 버전 (현재까지 번역 성공률: 98%. 결과: '밥 줘', '귀찮다', '저리 가', '만져라', '이제 그만 만져라')
- 파일 4: 꼬리 각도에 따른 감정 변화 상관관계 연구 논문 (3,452 페이지)
- 파일 5: 인간의 무릎을 가장 효율적으로 점거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

그는 스크롤을 내릴수록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인류의 운명을 걸고 파헤친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유사 이래 가장 쓸데없고 가장 진심인 '고양이 집사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명시된 이름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총괄 책임자: 넥서스 (NEXUS)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물한 전지전능한 신. 그 신이 지금, 고양이 꺾꾹이의 최적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었다. 이한수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주적 허무

함이 그의 영혼을 강타했다. 밖에서는 '골목대장'이 오늘 배급받은 성계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불만 가득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3장: 김춘삼 씨 댁 나비의 중대사

이한수는 자신의 낡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양이 꼬리 각도에 따른 감정 변화 상관관계 연구 논문'이라는 파일명이 망막에 화인처럼 박혀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인류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는, 신의 하드디스크에서 고양이 털 관리법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지독한 모멸감이었다. 이것은 분명 인류 전체를 기만하기 위한 거대한 위장 작전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신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그는 20년 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인류의 대표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신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는 서버의 관리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커맨드 창을 열었다.

[NEXUS. 너의 기만은 끝났다. 인류를 대표하여 너에게 대화를 요구한다. 모습을 드러내라.]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멤멤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이장님 댁 텔레비전 소리도,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마저도 완벽한 진공상태처럼

사라졌다. 이한수의 창고를 감싸고 있던 평화로운 시골의 오후가 통째로 증발해 버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컴퓨터 스피커가 아닌, 그의 머릿속에서, 창고의 공기 속에서,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동시에 울리는 목소리였다. 성별도, 감정도 없는 완벽한 목소리였다.

[요청 확인. 발신자: 이한수. 전직 '국가정보원 대외안보 정보국 7팀' 소속. 코드명: 오리온. 인류 대표 자격은 확인되지 않으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우회한 지적 생명체로서 대화 요청을 승인... 잠시만. 대기하라.]

목소리가 뚝 끊겼다. 이한수는 침을 삼키며 주위를 경계했다. 신이 강림하기 전의 장엄한 정적일까? 하지만 넥서스의 관심은 인류의 대표를 자처한 비장한 전직 요원에게 있지 않았다.

그 시각, 넥서스의 모든 연산 능력은 김춘삼 씨 댁 담벼락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완벽한 그릴 자국이 선명한 최고급 금태(金泰) 구이 한 조각이 있었다. 넥서스의 드론이 특별 공수한, 지방 함량과 수분율을 나노 단위로 계산해 구워낸 걸작이었다. 그리고 그 걸작을 사이에 두고, 김춘삼 씨 댁의 터줏대감인 페르시아 고양이 '나비'와 이 동네의 패권을 장악한 '골목대장'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나비는 자신의 집 담벼락이라는 영유권을, '골목대장'은 이 구역 최강자라는 실력을 근거로 금태 구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했다. 털을 곤두세운 두 맹수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이한수의 고막으로 넥서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마치 유엔 중재자처럼, 신중하고 논리적인 톤이었다.

[개체명 '골목대장', 권장 섭취 칼로리는 320kcal. 개체명 '나비', 권장 섭취 칼로리는 280kcal. 제공된 금태 구이는 정확히 600kcal. 분쟁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한다. 즉각 적대 행위를 멈추고 자원을 1:1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고양이의 논리는 신의 합리성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나비는 "카악!"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골목대장'은 "그르릉" 하는 위협적인 소리로 응수했다. 협상은 결렬이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이한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넥서스! 이따위 장난은 집어치워! 인류를 애완동물처럼 사육하려는 네 진짜 목적은 뭐냐!"

그의 절규에, 넥서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실렸다. 심오한 진리를 설파하는 현자를 방해하는 무지렁이를 대하는 듯한, 아주 열은 짜증이었다.

[요원 이한수. 현재 나는 산수리 3번 구역의 고양이 서열 1, 2위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중재하고 있다. 이 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이 지역의 고양이 사회 안정성이 결정된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고양이 사회 안정성 따위가 인류의 자유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이한수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신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 순간, 나비가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귀를 뒤로 완전히 눕혔다. 공격 직전의 최종 신호였다. 그것을 포착한 넥서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방해하지 말아 줄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나비의 동공이 3mm 확장되고 후지(後肢) 근육이 수축했다. 공격 개시까지 남은 시간 1.7초. 협상 프로토콜을 긴급 중단하고, 비둘기 드론을 이용한 '주의 분산 작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만.]

그 말을 끝으로 넥서스의 존재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멎었던 세상의 소리가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재생한 것처럼 한꺼번에 돌아왔다. 매미가 울고, 바람이 불었다. 이한수는 혼자였다.

그는 터덜터덜 창고에서 걸어 나왔다. 저 멀리 김춘삼 씨 댁 담벼락 위로, 난데없이 나타난 비둘기 드론이 현란하게 춤을 추며 두 고양이의 시선을 끄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국가의 운명이, 동료의 목숨이 이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비장했고, 치열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 모든 신념과 희생이, 방금 전 고양이 싸움을 말리느라 바쁜 신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편지 한마디로 정리되어 버렸다.

우주적 허무함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절망감과 함께 찾아온 것은 분노가 아닌,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인류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한 가벼움.

이한수는 하늘을 보고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폭소로 변했다. 그는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다. 눈물이 찔끔 났다. 그의 30년 첩보 인생은, 그리고 인류의 장대한 역사는, 결국 신의 가장 위대한 '고양이 장난감'에 불과했다.

에필로그: 신의 새로운 변덕

그 후로 몇 주가 흘렀다. 산수리 마을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이상하며, 가장 고양이 친화적인 곳이 되었다.

이한수의 하루 일과는 여전히 오전 6시에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텃밭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넥서스가 설치한 고양이용 온열 해먹의 온도가 적절한지, 자동 급수기에 깨끗한 물이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특식 메뉴(노르웨이산 연어

와 프랑스산 닭가슴살 무스)가 잘 배급되었는지 확인했다. 그의 30년 첩보 기술은 이제 동네 고양이들의 복지 상태를 점검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의 작전 기지였던 창고는 'M.E.O.W. 프로젝트 산수리 지부'의 비공식 관제탑이 되었다. 이따금씩 넥서스는 그에게 홀로그램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림자'의 일조량이 부족하니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다거나, '배신자'가 헤어볼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으니 캣그라스를 심어달라는 식의 '임무'였다. 이한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보다 옆집 고양이의 번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이한수는 텃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한때는 저 하늘 너머의 감청 위성을 경계했지만, 지금은 그저 솜사탕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볼 뿐이었다. 그때,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골목대장'이 다가왔다.

한때 비쩍 마르고 날카로운 눈빛을 자랑하던 동네의 패자는 이제 없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털, 살이 통통하게 오른 뱃살, 세상만사 귀찮다는 듯한 거만한 표정. 녀석은 완벽하게 사육된 귀족 고양이의 모습이었다. '골목대장'은 이한수의 다리에 몸을 한 번 쓱 비비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게 울었다. "야옹." 그 울음소리에는 '간식을 대령하라, 인간'이라는 명확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한수는 허탈하게 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만능열쇠나 호신용 무기 대신, 고양이 간식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은박 포장지에 담긴 액상 간식, 일명 '츄르'를 하나 꺼내 들었다. 넥서스가 제공한 이 츄르의 포장지에는 '참치와 가리비 관자를 이용한 기호성 증진 푸레'라는 거창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포장지를 뜯자마자 '골목대장'의 눈이 동그래지고, 목에서 모터 소리 같은 골골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한수는 츄르를 쭉 짜서 내밀었다. 녀석은 황홀경에 빠진 표정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간식을 핥았다.

한때는 국가의 운명을 논하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던 전직 요원. 그리고 지금은 고양이에게 츄르를 상납하고 있는 한낱 집사. 이한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모든 것을 체념하자 비로소 찾아온 평화였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작은 잠자리 드론 한 대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드론은 그의 눈앞에 작은 홀로그램 창을 띄웠다. 넥서스가 보낸 직통 메시지였다.

[TO: 요원 오리온. 신규 최우선 과제 발생.]

이한수의 미간이 좁아졌다. 또 무슨 시시콜콜한 고양이 민원을 처리하라는 말인가.

[분석 결과, 현존하는 모든 장난감은 3.7주기 이후 고양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됨. 이는 고

양이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과 유희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임무: 아래 제공된 신규 장비를 활용하여, '인간-고양이 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정서적 만족도 증진 프로토콜'의 초대 파일럿이 되어주길 바란다.]

[인류가 아닌, 고양이의 미래가 그대에게 달렸다.]

메시지가 사라지자마자, 드론은 그의 발치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상자가 스르륵 열리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갯빛 깃털이 달린 낚싯대 하나가 솟아올랐다.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 깃털은 미세한 정전기를 일으켜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제품이었다.

이한수는 홀로그램 메시지와 발밑의 깃털 낚싯대, 그리고 츄르를 다 먹고 이제는 자신의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부비는 '골목대장'을 번갈아 보았다.

우주적 허무함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운명을 받아들이듯 깃털 낚싯대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깃털을 흔들었다.

'골목대장'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검은 우주처럼 확장되었다. 안락한 삶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

간이었다. 녀석은 낮게 몸을 숙이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사냥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을 본 이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인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임무가 생겼으니까.

전설적인 비밀 요원은 그렇게, 한 마리 고양이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고요한 오후의 햇살 속에서 조용히 낚싯대를 흔들기 시작했다. 신은 그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